

특별대담 고우 스님-전재강 교수 '서장'을 다시 말한다

녹음이 한껏 짙어가는 태백산.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는 하늘 아래 인가(人家)가 끝난 곳에서 산은 시작됐다. 그리고 산길에 끝난 곳, 거기에 절이 있었다. 경북 봉화 각화사에서 암 전재강 교수(인동대 국문과)가 스승 고우 스님을 찾았다. 4년 전, 몇몇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틈에 끼어 고우 스님에게 <서장> 강의를 들었던 전 교수. 방문을 열자, 스님이 반갑게 맞았다.

방에는 대혜종교 선사(大慧宗杲)의 진영이 걸려있었다. 재가자에게 선수행의 모든 것을 편지로 알려줬던 당대 선지식 대혜종교 선사. 고우 스님은 전 교수에게 대해 선사와 재가자들의 사신을 묶은 <서장(書狀)>이 정경(正見)을 세우는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6월 17일, 그렇게 제자는 스승을 다시 만났다. 과연 <서장>이 현대를 사는 출·재가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서장>의 핵심사상은 무엇인지, 제자 전 교수는 스승 고우 스님에게 의심부대리를 풀어해쳤다.

전재강 : <서장>은 어떤 성격의 책인지, 나아가서 왜 출·재가들이 공부해야 하고 또 마음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고우 스님 :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해 존재원리를 발견한 분입니다. 그 존재원리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선(禪)이죠. 중국 대혜종교 선사는 <서장>을 통해 당시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법으로 선을 제시했어요.

때문에 <서장>의 성격은 시공을 초월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죠. 그래서 <서장>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공부의 필요성,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줘요.

특히 <서장>은 존재원리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강조해요. 이를 본래성불(本來成佛)이라 말하죠.

생활에서 선 구현하는 전통 살려야

전재강 : <서장>은 재가선의 활성화, 생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현대인들에게도 <서장>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우 스님 : <서장>은 시대의 필요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된 선어록(선언어록)에요. 무엇이든 시대의 필요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은 특히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원리를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해 그 생활을 완성시켜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은 생활에 매우 밀접해 있어요. 선이 우리에게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출·재가자들은 너무 도식화된 관화선에 얽매어 일상생활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점을 지양

하고 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하기는 전통을 살려야 해요. 대혜 스님도 이를 강조했어요. 화두를 통해 존재원리 체험을 생활과 병행할 것을 당부했죠.

전재강 : 그렇군요. 스님, 사실 <서장>이 나오기 이전에는 조사선의 쇠퇴했다고 볼 수 있죠. 스승의 말씀 한 마디에 깨달은 '언하대오(言下大悟)'의 전통이 약해진 때였어요. 그래서 하근기 수행자를 위해 나온 극약처방이 바로 관화선 아닙니까?

고우 스님 : 관화선이 조사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사실이 틀은 같습니다. 조사선 속에도 정형화만 안 됐을 뿐, 관화선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관화라는 말이 없었지, 그런 형태로 공부할 해왔던 거죠. 이후 대혜 스님이 관화선이란 이름도 붙이고, 그것을 정형화시켰어요. 대혜 스님 당시에는 선공부가 사대부에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선의 본질인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존재원리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험 없이 그냥 말로써 모든 문제를 풀이하려는 풍조가 생기기 됐어요. 결국 관화선은 조사스님들의 말에서 의심을 일으켜 깨달음이라고 한 수행법이에요.

관화선과 회광반조, 따로 봐선 안돼

전재강 : 그럼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관화선이 입각한 근본적인 입장, 선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선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선 수행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어떻게 말씀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우 스님 : <서장>이라고 해서 별다른 법이 아니에요. <서장>이 불멸이고 불변이 <서장>입니다. 조사선이나 관화선이나 모두 다 하나예요. 그럼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견성유무를 떠나 6근(眼) 6식(識)을 통해 현상을 보고 느끼고 감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을 만드는 본질은 안 보고 있어요. 부처님이 해안(慧眼)으로 보신 시각은 현상



대담을 마친 고우 스님과 전재강 교수가 서암 처마 밑에서 서로 마주보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태백산 능선이 유리문에서 그자태를 잔잔히 드러내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김철우 기자

은 물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지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현상과 해안으로 보는 시각은 달라요. 부처님의 시각이 바로 보는 것이고, 육안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지요.

또 선수행에서 경계할 점은 사량(思量)으로써 존재원리를 이해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병폐입니다. 그런데 이 병폐는 그냥 병폐로 끝나지 않고, 선수행을 구두선(口頭禪)으로 떨어뜨려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말로는 깨진 듯하지만, 정작 실제생활에는 실행이 안 되는 구두선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전재강 : 선의 본지는 일체가 '본래성불(本來成佛)'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혜 스님 <서장>에서 관화선을 매우 강조했지만, 다른 편지를 보면 관화선 이외 회광반조(迴光返照)라는 선을 말씀하시기도 한 듯 합니다. 선법 가운데 회광반조법의 근본 입장은 관화선의 근본 입장과 같습니까? 또 대혜 스님이 말씀하시는 회광반조법이 어떤 수행 방법입니까?

고우 스님 : 본래성불은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이죠. 원시불교에서는 현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고 했고,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고 했죠. 결국 '연기=법=여래=존재'인 셈입니다. 이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는 중생도 역시 본래 성불해 있고, 현상과 본질을 함께 해안으로 보는 부처님도 본래성불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체험해가는 데 관화선법과 회광반조법이 있지요.

<서장>에는 관화선법이 2/3, 회광반조법이 1/3 정도 돼요. 대혜 스님이 관화선법만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관화선법과 회광반조법을 유연하게 제시했지, 편협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관화선법과 회광반조법은 무엇일까요? 선문에서는 관화선을 성성적(惺惺寂寂), 회광반조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 했어요. 이것을 원시불교에 비교한다면, 관화선

은 위빠사나, 회광반조는 사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대혜 스님의 제자인 영가 스님도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에서 매우 조심할 것은 위빠사나는 해(慧)고 사마타는 정(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해를 나눠놓고 보면 안 돼요. 대혜 스님은 이렇게 보는 것을 <단경>에서 의도라 했어요. 즉 관화선과 회광반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행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관화선은 쌍조(雙照)로서, 회광반조법은 쌍자(雙遮)로서 수행해야 해요. 그러면 정해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게 돼요.

전재강 : <서장>에서 대혜 스님은 목조선을 배척하면서 잘못된 선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목조선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잘못 됐기에 비판했나요? 관화선이나 회광반조와 대비해 소위 '목조사사 배(木查查事)'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세요.

고우 스님 : 대혜 스님은 회광반조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대혜 스님 스스로도 회광반조와 관화선을 함께 공부방법을 제시했어요. 대혜 스님이 배척한 목조선은 회광반조하는 목조선이 아니에요. 적적만 하는 목조선을 비판했어요. 실제로 평지정각 선사(平地正覺) 목조선을 꾸짖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적적만 하는 목조선을 비판하는 내용도 많지만, 반대로 '있다'에 집착해 성성만 수행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배척하고 있어요.

'본래성불'만 깨달으면 평화세상

전재강 : 그럼 목조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고우 스님 : 그렇죠, 목조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재강 : 목조선이 바로 회광반조입니까?

고우 스님 : 그렇죠. 앞서 강조했듯이 쌍차(雙遮)로 수행을 해야 해요.

전재강 : 스님께서는 <서장>의 어떤 대목에서 감명을 받으셨습니까?

고우 스님 : '본래성불'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말이지요. 부처님이 해안으로 발견한 세계에는 우리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본래성불만 깨달으면, 이 세상에의 갈등과 대립, 투쟁 등은 하루아침에 종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성불이란 이 대목, 즉 '모든 존재는 부처로서 존재한다'는 이 말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전재강 : 요즘은 살아있는 선지식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장>은 진정한 선지식이 된다고 봅니다. <서장>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우 스님 : 선지식이 우리에게 갖는 의

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선지식은 본래성불 그 자리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본래부처로 됐다고 해도,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그 본질인 본래성불을 보지도 계합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지식은 그런 우리에게 본래성불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식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목표를 향해 가는 이유를 정경(正見)으로 설명해요. 또 정경을 갖춰주게 하지요.

'수행혼란시대'...전통수행법 알아야

전재강 :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서장>의 내용과 큰스님의 오랜 선수행의 경험에 근거하여 선수행법을 '돈벌이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을 '수행혼란시대'라고 말해요. 다양한 수행법이 정말로 근원적인 불안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짚어봐야 해요.

전통 수행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발을 잘 밟아야 합니다. 선지식은 수행자들에게 정경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정경에 의해 바로 수행체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정경에 의해 일상생활화 하는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리/경북 봉화=김철우 기자

'서장'은 어떤 책?

선방 수좌들간에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책만은 짚어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사스님들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어록이다. 대혜종교 선사(1089~1163)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담은 이 책은 '천고(太古)의 절서(絶書)'로 꼽히는데 주저함이 없게 한다.

<서장>은 대혜 선사가 주로 사대부들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준 편지글로서, 그의 제자 해연이 기록하고 황문장이 편찬한 것으로, <대혜어록> 30권 가운데 25~30권에 해당한다. 수록된 62편의 서신 가운데에는 스님 2인, 여성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식인이자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2기)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무료
송 주 편 (도량식·조석종성 등)
예 경 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상례·신중단 등)
현 공 편 (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재의식편 (천도제·49제·시다림·기계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시 식 편 (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개강일시 : 2005년 7월 7일(목) 오후 2시 (목탁, 필기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범패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위 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 불교 법사 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9 (한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간(肝)이 염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리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황리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목조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줄벌레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대) FAX. (031)451-6238
HP. 011-747-2111